



유라시아 신화여행

신화, 다시 이어지는 길

최혜영
김윤아
최원오
이재정
문현선
양민종
신진숙



유라시아 신화여행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문화재단이 진행한 '신화와 예술 맥놀이-유라시아 신화여행, 다시 이어지는 길'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강좌의 특성상 이미지나 영상, 소리 등을 이용한 강좌가 많아 이 책에서도 그림과 표, 지도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현장성을 살리고자 했다.
2. 외래어 표기는 최대한 국립국어원이 정한 규칙을 따랐으나, 일부는 필자의 의견이나 관행을 따랐다.
3. 신화의 특성상 원래의 신화 자체와 훗날 우리가 접하게 된 책 또는 예술작품을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본문에서는 신화를 나타낼 때 거의 모든 경우에 〈 〉 표시를 사용하였다. 단, 해당 신화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책이나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교정교열 원칙에 따라 표시하였다.

유라시아 신화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 라플란드에서 시작해 알타이, 시베리아, 만주를 거쳐 아시아의 동쪽 끝 연해주와 바다 건너 홋카이도에 이르는 긴 여정이다.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전에 겪지 못한 모험을 기대하셔도 좋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곳은 대체로 춥고 황량하다. 그렇다고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한 이레 쉼 없이 내리던 눈발이 잠깐 잦아들면, 마치 꿈이 되려다 만 것 같은 사내가 갓 잡은 사슴을 어깨에 둘러멘 채 자작나무 숲을 불쑥 빠져나올지 모른다. 어디선가는 또 무릎까지 폭폭 쌓이는 눈발을 헤치며 산골로 가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백석)를 마주 칠지도 모르며…….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길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도를 가로지른다.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빙하쥐 450마리분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사내가 북극행 초특급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검은 여우 9백 마리의 가죽을 가져오겠노라 내기를 한 터였다. 그러나 열차가 베링해를 건너기도 전에 스무 명의 사람이,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백곰이라고 하는 편이 나올 성싶은 이들이, 폭신폭신한

모피를 입고, 아니 입었다기보다는 피부 자체가 아예 모피인 듯싶은 모습으로 우르르 들이닥쳤다. 서둘러 결론을 말하면, 사내는 가까스로 목숨만은 건진다.(미야자와 겐지, 『빙하쥐 털가죽』)

그런 사내들이야 천지사방에 널려 있다.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북극행 열차를 멈춰 세운,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니고 백곰인 듯 백곰이 아닌 이들에게 더 가닿는다. 미야자와 겐지는 우리가 가려는 길의 실체를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 정확히 짚어주었다. 사람과 동물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 위도, 그 위도 위의 길. 김윤아는 그 길을 이렇게 상상한다.

크고 반짝이는 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죽은 영혼들은 별이 될 거라 여겼겠지. 머리 위로 오로라가 너울대고 타이가의 울창한 침엽수 숲은 무섭기도 했겠지. 간간이 배고픈 늑대들의 형형한 눈빛을 마주했을 테고, 살을 에는 북풍과 눈보라가 가혹했을 텐데. 그 길 없는 길을 빠르게 지나쳐 갔을 그들. 그들은 왜 거기를 달렸을까.

『유라시아 신화여행』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실,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동떨어진 대륙이 아니다. 일찍이 낙타를 앞세운 대상들이 비단과 향료를 구해 거친 사막을 가로질렀고, 용맹한 전사들은 말을 몰아 모래바람처럼 초원을 누볐다. 그러니까 문명과 전쟁이 두 대륙을 하나로 이어준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회장을 한 겹만 들추면 그 길은 전혀 다른 풍경을 드러낸다. 거기서는 사람과 곰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말과 낙타보다는 순록과 늑대가 더 자주 출몰한다. 사람들은 대상과 전사보다는 사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곤 했다. 가령 세상이 처음 열리던 시절, 여신들이 펼친 장엄한 활약상을 고스란히 전해준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두 대륙의 도처가 간직한 놀라운 유사성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예컨대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늑대와 아시아 유목민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푸른 늑대, 유럽 신화의 태양새와 동아시아 신화의 삼족오, 그리고 북유럽 신화의 물푸레나무와 우리 신화의 버드나무가 어떤 친연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다 보면 가슴이 두근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견증이 문명의 우승열패 따위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신화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가 역사 이래의 누적된 시차^{時差}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인간과 자연이 왜 시소의 양 끝에 나뉘 앓은 듯 공생의 에티카(윤리학)를 실현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리라.

경기문화재단과 독자 여러분의 든든한 뒷받침에 새삼 고마움을 표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화여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남일

(소설가, 『세계 신화여행』 『아시아 신화여행』 공저자)

차례

책머리에

005

제1강

유라시아 신화와 문명의 교류

: 늑대와 태양새, 버드나무

최혜영

유라시아의 건국 신화

014

로마의 건국 신화

015

유라시아 유목민 신화: 늑대와 새

022

징검다리: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족 신화

029

유라시아 신화와 버드나무

032

유라시아 유목민의 문명 교류

040

제2강

매직 로드, 시베리아를 지나 스칸디나비아까지

김윤아

순록 썰매를 타고 유라시아를 가다

050

유라시아 매직 로드 혹은 순록 길

053

사슴돌

057

신화에서의 사슴

061

헝가리의 〈신비의 사슴〉 신화

064

매직 로드와 순록 신화들

069

‘세계축’으로서의 크리스마스트리

076

노마드의 삶, 유목 전사들의 세계관

080

마고할미와 삼신할미

084

러시아의 마귀할멈 바바 야가	088
황금 무녀 굴베이그	091
라플란드의 사미족	093
매직 로드와 뮤직 벨트	095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의 매직 로드	097
질의응답	100

제3강

동북아 민족의 창세서사시와 영웅서사시

: 만족, 허저족, 아이누를 중심으로

최원오

세 민족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 영토와 문화의 공유	106
만족의 창세서사시: 〈천궁대전〉	108
〈천궁대전〉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	128
인류 시모신인 큰 샤먼의 후예: 니산 샤먼	130
〈니산 샤먼〉의 세 층위를 통해 본 영웅성과 비극성	136
허저족의 영웅서사시 이마칸: 〈만투머르컨〉	143
아이누의 유카르 문학	154
아이누의 영웅서사시 유카르: 〈쿠투네 시르카〉	158
동북아 민족의 창세서사시와 영웅서사시의 관계	170

제4강

슬라브 민족의 풍습과 민담에 나타난 신과 정령들

이재정

슬라브 민족과 신화 이야기	179
동슬라브 신화의 만신전	182
상위 신	185
중위 신	192
하위 신	196
슬라브 신화의 특징	209

제5강

동아시아 초원 민족의 영웅서사시와 중국의 신화 다시 쓰기

: 〈장가르〉·〈마나스〉·〈게세르〉를 중심으로

문현선

살아 있는 신화, 믿음을 구성하는 이야기	214
동아시아 초원 민족의 3대 영웅서사시	216
툰드라, 타이가, 초원	219
‘중화인민공화국’의 3대 서사시	221
〈장가르〉	233
〈마나스〉	241
〈게세르〉	246
영웅서사시의 구조	250
중국 비한족 신화의 위상과 신화 다시 쓰기	255
중국 애니메이션 〈나의 붉은 고래〉	265

제6강

시베리아와 신화

양민중

신화, 인류의 문화유산	277
시베리아 이야기	281
민속과 결합된 러시아 정교의 신화	285
알타이 이야기	291
서사시 〈마나스〉	293
알타이 지역의 다른 신화들	296
부랴트 이야기	299
신화 서사시 〈게세르〉	302
〈게세르〉, 샤머니즘 세계의 경전	304

제7강

유라시아의 여신 신화

문현선

문헌 신화와 구비 신화	308
건국 신화가 아닌 우리 신화	314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 - 우리나라 신화를 중심으로	319
〈바리데기〉 신화	320
〈자청비〉 신화	331
〈당금애기〉 신화	338
달의 삼위일체	343
영웅의 모험과 신성한 결혼	348
시조모 신과 보천 여신	352
여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을 메우다	357
〈나무 도령〉 신화	366
아프로디테와 프시케	374
유라시아 신화와 수목 신앙	378

제8강

꿈과 인간의 만남

: 아이누 신화를 중심으로

신진숙

생태철학으로서의 신화	385
신화와 정치	389
신화와 의례	392
아이누 민족의 꿈 신화와 의례	404
신화, 허구의 이야기를 넘어 생태철학으로	423